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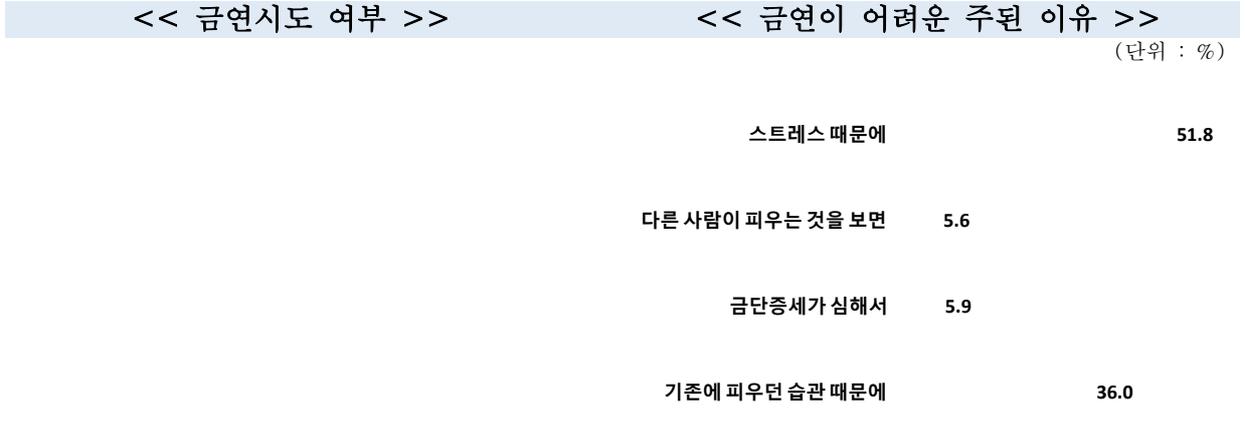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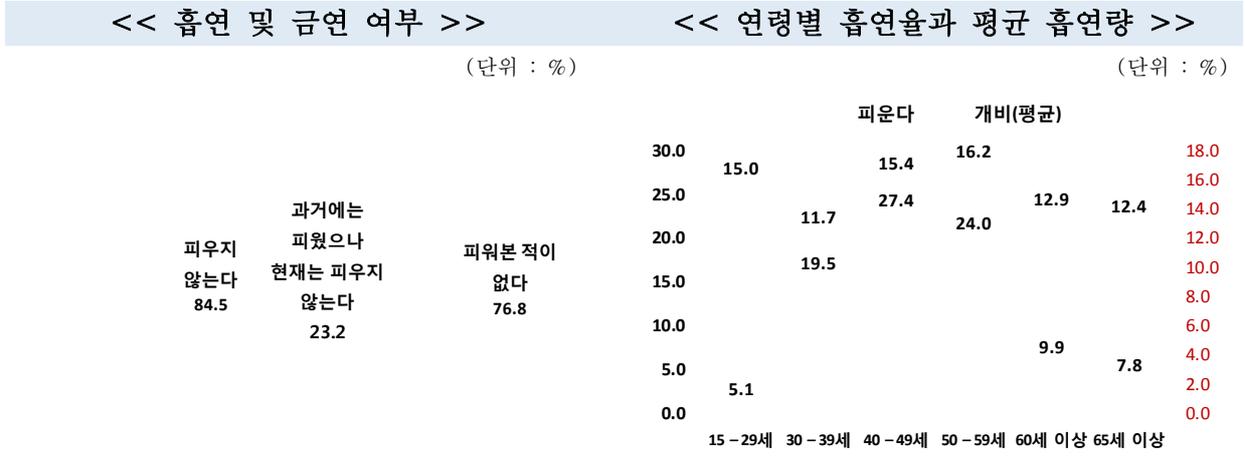
## 6 . 보건 · 의료



6-1. 흡연 및 금연 여부

군민 7명 중 1명은 흡연,  
금연이 어려운 주된 이유로는 「스트레스」와 「습관」

- 군민 중 담배를 「피운다」는 사람은 15.5%로 낮게 나타났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사람(84.5%) 중 23.2%는 금연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흡연율(29.5%)은 여성의 흡연율(1.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성”(70.5%) 중 50.5%는 금연함
  - “고졸” 학력의 흡연율(20.6%)은 다른 학력에 비해 높음
-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군민은 45.2%로 나타났고, 금연이 어려운 주된 이유로는 「스트레스 때문에」가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금연이 어려운 주된 이유로 “스트레스 때문에”(5.18%)라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 금연이 어려운 이유로는 “30대 미만”은 “스트레스 때문에” 항목에 100% 비율로 응답하는 등 연령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때문에”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음
  - 학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때문에”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음



[표 6-1] 흡연여부 및 흡연정도

(단위 : 개비, %)

구 분	계	피운다		피우지 않는다				
		개비	소계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피워본 적이 없다			
2017	100.0	15.5	14.4	84.5	100.0	23.2	76.8	
지역별	중부권	100.0	16.3	14.8	83.7	100.0	21.4	78.6
	북부권	100.0	19.4	14.3	80.6	100.0	17.7	82.3
	서부권	100.0	12.5	13.7	87.5	100.0	30.4	69.6
	광주인근권	100.0	14.2	14.6	85.8	100.0	21.5	78.5
성별	남 자	100.0	29.5	14.7	70.5	100.0	50.5	49.5
	여 자	100.0	1.3	7.4	98.7	100.0	3.5	96.5
연령별	15 - 29세	100.0	5.1	15.0	94.9	100.0	4.2	95.8
	30 - 39세	100.0	19.5	11.7	80.5	100.0	16.5	83.5
	40 - 49세	100.0	27.4	15.4	72.6	100.0	30.1	69.9
	50 - 59세	100.0	24.0	16.2	76.0	100.0	26.1	73.9
	60세 이상	100.0	9.9	12.9	90.1	100.0	29.7	70.3
	65세 이상	100.0	7.8	12.4	92.2	100.0	28.8	71.2
학력별	중졸이하	100.0	12.4	14.3	87.6	100.0	21.3	78.7
	고 졸	100.0	20.6	15.1	79.4	100.0	26.4	73.6
	대졸이상	100.0	14.7	13.1	85.3	100.0	23.4	76.6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표 6-1] 금연시도 여부 및 금연을 못하는 이유

(단위 : %)

구 분	금연시도 여부			금연을 못하는 이유						
	계	있다	없다	계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우는 것을 보면 피우고 싶어서	금단증세가 심해서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	기타	
2017	100.0	45.2	54.8	100.0	51.8	5.6	5.9	36.0	0.7	
지역별	중부권	100.0	45.3	54.7	100.0	54.2	7.5	5.0	33.2	0.0
	북부권	100.0	34.7	65.3	100.0	19.6	0.0	3.5	72.3	4.6
	서부권	100.0	58.6	41.4	100.0	76.0	2.3	9.3	12.3	0.0
	광주인근권	100.0	40.4	59.6	100.0	31.8	12.5	4.6	51.1	0.0
성별	남 자	100.0	44.8	55.2	100.0	52.8	5.9	6.2	34.3	0.7
	여 자	100.0	55.3	44.7	100.0	31.8	0.0	0.0	68.2	0.0
연령별	15 - 29세	100.0	77.1	22.9	100.0	100.0	0.0	0.0	0.0	0.0
	30 - 39세	100.0	37.9	62.1	100.0	53.8	0.0	10.3	35.9	0.0
	40 - 49세	100.0	47.4	52.6	100.0	66.9	5.3	5.3	22.5	0.0
	50 - 59세	100.0	45.1	54.9	100.0	46.7	3.5	0.0	49.9	0.0
	60세 이상	100.0	40.6	59.4	100.0	19.9	14.0	14.0	49.0	3.1
	65세 이상	100.0	37.2	62.8	100.0	30.6	24.4	5.8	33.8	5.5
학력별	중졸이하	100.0	43.2	56.8	100.0	40.6	4.5	3.6	49.3	2.0
	고 졸	100.0	43.8	56.2	100.0	55.3	9.7	6.0	29.1	0.0
	대졸 이상	100.0	52.2	47.8	100.0	63.3	0.0	9.3	27.4	0.0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6-2. 음주 및 금주 · 절주 여부

군민 2명 중 1명은 음주,  
금주가 어려운 주된 이유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 군민의 47.2%가 술을 마시며, 「월 2~3회」(29.8%) 마시는 사람이 가장 많고,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없다」(52.8%)라고 답한 군민 중 42.2%는 금주함
  - “서부권”의 음주율(59.7%)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 “있다”는 성별은 “남자”(65.9%), 연령층은 “40~49세”(66.4%), 학력은 “대졸 이상”(64.5%)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66.4%)의 음주율이 가장 높고 “65세 이상”(28.1%)의 음주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월 1회 이하”와 “월 2~3회”의 응답 비율이 “15~29세” 연령층에서 각각 40.6%,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의 매일”의 응답 비율은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모두 10% 이상의 비율을 보임
- 지난 1년 동안 절주나 금주를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도민은 20.2%로 나타났고, 금주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64.5%)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대졸 이상” 학력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73.4%)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음주 여부 및 음주정도 >>

월 1회 이하  
25.6  
월 2-3회  
29.8

<< 금주시도 여부 >>

<< 금주가 어려운 이유 >>

스트레스 때문에 29.2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64.5  
금단증세가 심해서 1.8

[표 6-2] 음주여부 및 음주정도

(단위 : %)

구 분	계	있다							없다				
		소계	월 1회 이하	월 2-3회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	소계	과거에는 마셨다	마셔 본 적이 없다			
2017	100.0	47.2	100.0	25.6	29.8	25.9	10.5	8.2	52.8	100.0	42.2	57.8	
지역별	중부권	100.0	43.0	100.0	31.4	26.5	21.2	12.7	8.2	57.0	100.0	37.7	62.3
	북부권	100.0	41.8	100.0	21.2	28.2	32.3	9.6	8.8	58.2	100.0	44.8	55.2
	서부권	100.0	59.7	100.0	22.6	37.0	24.0	8.1	8.3	40.3	100.0	54.2	45.8
	광주인근권	100.0	43.7	100.0	21.5	24.1	36.3	10.5	7.5	56.3	100.0	37.8	62.2
성별	남 자	100.0	65.9	100.0	18.3	26.8	29.9	13.9	11.1	34.1	100.0	57.9	42.1
	여 자	100.0	28.3	100.0	42.9	36.9	16.6	2.4	1.2	71.7	100.0	34.6	65.4
연령별	15 - 29세	100.0	46.5	100.0	40.6	43.7	9.8	2.5	3.4	53.5	100.0	18.9	81.1
	30 - 39세	100.0	63.8	100.0	33.3	31.8	24.6	5.4	4.9	36.2	100.0	34.8	65.2
	40 - 49세	100.0	66.4	100.0	16.9	25.4	33.8	16.5	7.3	33.6	100.0	50.4	49.6
	50 - 59세	100.0	53.1	100.0	20.2	22.3	28.4	16.9	12.2	46.9	100.0	38.6	61.4
	60세 이상	100.0	32.7	100.0	23.9	29.8	27.8	8.2	10.3	67.3	100.0	50.3	49.7
	65세 이상	100.0	28.1	100.0	26.4	30.9	27.0	5.7	10.1	71.9	100.0	51.0	49.0
학력별	중졸이하	100.0	30.1	100.0	28.4	25.3	22.3	12.1	12.0	69.9	100.0	39.8	60.2
	고 졸	100.0	61.3	100.0	22.1	30.9	26.9	12.2	7.9	38.7	100.0	43.3	56.7
	대졸 이상	100.0	64.5	100.0	28.0	32.9	28.4	6.1	4.6	35.5	100.0	51.0	49.0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표 6-2] 절주·금주 시도 여부 및 금주를 못하는 이유

(단위 : %)

구 분	절주·금주 시도여부			금주를 못하는 이유					
	계	있다	없다	계	스트레스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금단증세가 심해서	기타	
2017	100.0	20.2	79.8	100.0	29.2	64.5	1.8	4.4	
지역별	중부권	100.0	18.9	81.1	100.0	34.1	65.9	0.0	0.0
	북부권	100.0	10.4	89.6	100.0	42.6	44.0	6.3	7.1
	서부권	100.0	27.2	72.8	100.0	19.2	69.6	3.1	8.0
	광주인근권	100.0	17.3	82.7	100.0	42.2	54.6	0.0	3.2
성별	남 자	100.0	22.0	78.0	100.0	29.4	66.3	1.8	2.5
	여 자	100.0	15.8	84.2	100.0	28.7	58.7	1.9	10.7
연령별	15 - 29세	100.0	16.0	84.0	100.0	10.7	89.3	0.0	0.0
	30 - 39세	100.0	10.4	89.6	100.0	51.9	40.2	0.0	7.9
	40 - 49세	100.0	22.1	77.9	100.0	38.5	52.2	0.0	9.3
	50 - 59세	100.0	30.6	69.4	100.0	27.8	69.8	0.0	2.3
	60세 이상	100.0	18.4	81.6	100.0	24.4	64.6	7.3	3.7
	65세 이상	100.0	18.0	82.0	100.0	16.3	72.6	5.4	5.6
학력별	중졸이하	100.0	19.4	80.6	100.0	31.5	59.7	3.1	5.7
	고 졸	100.0	21.7	78.3	100.0	34.0	62.6	2.1	1.4
	대졸 이상	100.0	18.6	81.4	100.0	18.2	73.4	0.0	8.4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 6-3. 필요한 보건서비스

#### 필요한 보건서비스로는 「건강진단 서비스」를 가장 선호

- **군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보건서비스는 「건강진단 서비스」로 나타남**
  - “건강진단 서비스”(22.1%)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강상담 서비스”(18.4%), “질병관리 서비스”(18.2%) 순임
- **연령별 필요한 보건서비스에 차이가 나타남**
  - “60대 이상”은 “방문간호 서비스”와 “질병관리 서비스”의 응답 비율이 높으며 “60대 미만”은 “건강진단 서비스”와 “건강상담 서비스” 항목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 필요한 보건서비스 >>

(단위 : %)

건강상담 서비스									18.4			
건강진단 서비스												22.1
방문간호 서비스						11.6						
질병관리 서비스									18.2			
구급 서비스				4.9								
위생영양지도 서비스	2.3											
예방접종 서비스								15.2				
정신보건 서비스		3.0										
비만관리 서비스			3.9									

[표 6-3] 필요한 보건서비스

(단위 : %)

구분	계	건강 상담 서비스	건강 진단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질병 관리 서비스	구급 서비스	위생 영양 지도 서비스	예방 접종 서비스	정신 보건 서비스	비만 관리 서비스	기타	
2017	100.0	18.4	22.1	11.6	18.2	4.9	2.3	15.2	3.0	3.9	0.3	
지역별	중부권	100.0	21.2	26.6	8.6	10.9	5.6	1.5	18.0	2.9	4.5	0.3
	북부권	100.0	12.8	16.2	17.0	23.0	7.9	4.8	16.0	1.9	0.3	0.2
	서부권	100.0	15.5	21.5	11.4	24.2	4.1	2.2	11.3	4.4	4.6	0.6
	광주인근권	100.0	20.6	17.0	14.7	23.9	1.7	2.4	13.2	2.2	4.3	0.1
성별	남자	100.0	19.9	24.8	8.5	18.5	4.6	2.1	13.9	3.2	3.9	0.6
	여자	100.0	16.8	19.4	14.8	18.0	5.3	2.6	16.6	2.8	3.9	0.0
연령별	15 - 29세	100.0	12.9	26.4	5.2	7.4	6.0	5.9	21.2	4.9	9.4	0.7
	30 - 39세	100.0	18.4	25.5	4.2	18.1	5.5	2.2	17.9	4.5	3.2	0.4
	40 - 49세	100.0	21.9	23.2	5.2	19.3	4.3	0.8	15.1	4.8	5.1	0.4
	50 - 59세	100.0	19.6	22.2	10.3	18.8	4.7	1.6	15.7	2.7	4.5	0.0
	60세 이상	100.0	18.7	18.7	20.0	22.4	4.6	1.8	11.5	1.0	0.8	0.3
	65세 이상	100.0	17.7	17.4	22.8	22.5	4.6	1.8	11.6	0.9	0.5	0.2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다중응답 = 필요한 보건서비스 (선택 1), (선택 2)

## 6-4. 걱정되는 질환

### 군민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은 「암」, 걱정하는 주된 이유는 「의료비 부담」 과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 **군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은 「암」 (37.8%)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암”(37.8%) 다음으로 “치매”(20.2%), “관절염”(11.2%), “고혈압, 뇌졸중”(10.7%) 순으로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암” 질환을,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 질환을 걱정
- **질환을 걱정하는 주된 이유는 「의료비 부담」 (27.5%)과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25.9%)로 나타남**
  - “의료비 부담”(27.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25.9%), “삶의 질 저하”(20.6%), “생활불편”(19.7%), “간병에 대한 부담감”(2.8%) 순임
  -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음

#### << 걱정되는 질환 >>

#### <<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

(단위 : %)

질환	37.8	27.5	20.6	19.7	2.8	25.9
암						
관절염	11.2					
고혈압, 뇌졸중	10.7					
당뇨	4.2					
치매		20.2				
치과질환	2.8				2.8	
안과질환	1.9					
심장질환	3.6					
피부병	2.4					
		의료비 부담	생활불편	삶의 질 저하	간병에 대한 부담감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 <<연령별 걱정되는 질환 >>

(단위 : %)

15-29세		57.7			3.2	2.0	9.8	
30-39세		54.1			4.3	6.2	2.3	10.3
40-49세		46.1		7.2	15.9	4.9	13.4	
50-59세		41.7		8.7	10.0	6.4	19.8	
60세 이상	20.3	19.0	13.8	5.1			30.0	
65세 이상	16.3	20.9	12.6	5.4			32.3	
	암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당뇨	치매	치과질환		

[표 6-4] 걱정하는 질환

(단위 : %)

구 분	계	암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당뇨	치매	치과 질환	안과 질환	심장 질환	피부병	기타	
2017	100.0	37.8	11.2	10.7	4.2	20.2	2.8	1.9	3.6	2.4	5.2	
지역별	중부권	100.0	42.1	10.1	11.7	3.0	19.5	2.5	0.4	3.7	0.8	6.3
	북부권	100.0	33.7	11.1	11.5	8.5	22.2	2.5	3.9	5.5	0.0	1.2
	서부권	100.0	42.9	11.6	7.6	3.6	23.4	1.3	0.6	2.4	0.0	6.6
	광주인근권	100.0	22.7	13.4	12.1	4.1	15.2	6.0	5.8	3.5	13.0	4.2
성별	남 자	100.0	38.6	8.2	13.4	5.1	15.4	2.7	1.8	4.9	3.3	6.5
	여 자	100.0	37.0	14.2	8.0	3.3	25.1	2.8	1.9	2.4	1.5	3.9
연령별	15 - 29세	100.0	57.7	3.2	2.0	0.0	9.8	7.0	3.2	2.4	9.2	5.5
	30 - 39세	100.0	54.1	4.3	6.2	2.3	10.3	3.7	1.3	2.6	7.7	7.4
	40 - 49세	100.0	46.1	7.2	15.9	4.9	13.4	2.6	1.4	3.6	0.0	4.9
	50 - 59세	100.0	41.7	8.7	10.0	6.4	19.8	2.1	1.5	3.0	0.5	6.3
	60세 이상	100.0	20.3	19.0	13.8	5.1	30.0	1.2	1.8	4.7	0.0	4.0
	65세 이상	100.0	16.3	20.9	12.6	5.4	32.3	0.7	2.1	5.0	0.0	4.6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표 6-4]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단위 : %)

구 분	계	의료비 부담	생활 불편	삶의 질 저하	간병에 대한 부담감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기타	
2017	100.0	27.5	19.7	20.6	2.8	25.9	3.5	
지역별	중부권	100.0	29.7	13.7	22.5	2.1	27.1	4.9
	북부권	100.0	20.2	33.1	20.1	2.2	24.2	0.3
	서부권	100.0	31.2	17.3	15.5	4.8	26.4	4.8
	광주인근권	100.0	23.1	26.2	24.0	2.2	23.8	0.7
성별	남 자	100.0	28.2	19.5	22.4	2.4	23.7	3.8
	여 자	100.0	26.8	20.0	18.7	3.2	28.1	3.2
연령별	15 - 29세	100.0	30.1	20.6	36.9	0.0	9.0	3.5
	30 - 39세	100.0	24.2	15.0	24.1	0.0	27.9	8.7
	40 - 49세	100.0	29.5	11.3	25.1	2.1	28.2	3.7
	50 - 59세	100.0	30.6	16.8	20.2	4.0	23.4	4.9
	60세 이상	100.0	25.1	25.4	11.5	4.4	32.4	1.2
	65세 이상	100.0	25.1	26.1	9.8	3.8	33.8	1.4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